징계의결 요구 시 공무원 고의 · 과실 여부 사전 검토

윤준병 의원,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여부 사전 검토법'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이 20일 징계의결 요구 시 공무원의 적극행정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지 사전에 검토하도록 명시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여부 사전 검토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면책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함에 있어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지의 여부가 제대로 판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배상 등의 책임을 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사례도 있어 징계의결 요구 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여부의 사전 확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윤 의원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징계의결을 요구 할 때에는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헌법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 수행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징계의결 요구 간 면책 여부의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들이 존재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여부를 사전에 확인토록 명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행정 현장에서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국민들이 공무원과 공직사회를 신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법적·제도적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지방을 국가발전 새 동력으로 키울 것"

송하진 도지사, 참좋은지방정부위 공동위원장 선임 관련

"다양성의 시대, 수도권이라는 엔진만으로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힘차게 달릴 수 없습니다. 지역적 특성과 매력을 살리고 발전시킨 지방이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동력입니다. 확실한 자치와 분권으로 지방의 역량을 키우고 수도권 일극(一極) 체제를 극복하겠습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선임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밝힌 포부다.

현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 지사는 이번 공동위원장 선임으로,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는 최초로 소속정당의 지방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핵심회의체의 수장(守將)을 동시에 역임하게 됐다.

그런 만큼 송 지사의 각오도 남다르다.

지방행정가이자 정치인으로 쌓아온 40여 년의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면서 지방분권의 실질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헌신하겠다는 계획이다.

송 지사는 "관점의 변화가 혁신의 출발점이다"라며 "지방자치 실현, 대한민국 혁신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대등하고 수평적으로 만드는 일부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지방정부의 의견과 입장을 수렴하고, 이를 당내에 적극적으로 전달해 앞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해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송 지사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과감한 대처와 빠른 속도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람도 성년에 이르면 삶을 주도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이 부여되는데, 서른 살이 넘은 지방자치는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제약과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가칭) 등 과감하고 확실한 분권추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 갈수록 심화하는 지역 간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이어져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송 지사는 "인구와 경제 규모가 열세인 지역은 경제성을 이유로 도전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서 송 지사는 "재정격차 완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 마련에 집중하고, 강소권 메가시티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유호상 기자

지난 16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8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

청소년이 뽑은 '국회의원 선플상' 수상

한병도 의원 "정제된 언행으로 의정활동 이어갈 것"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지난 16일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했다.

선플상 시상식은 국회선플위원회(공동위원장 변재일, 홍문표)와 (재)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 중앙대학교 석좌교수)이 공동주최하고, 올해로 8회를 맞이하는 시상식이다.

이번 선플상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 30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선플SNS기자단'이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국회회의록시스템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운영위원회 간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소통과 화합의 언어 사용을 실천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병도 의원은 "청소년이 직접 심사하고 수여하는 상을 받게 돼 더욱 기쁘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정제된 언행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악성 댓글 근절과 깨끗한 온라인 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고향사랑 기부금법' 입법 헌신 공로 인정

양성빈 전 도의원 지역발전 공헌대상 수상

양성빈 전 전북도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의정대상, 지방자치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지역발전공헌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방자치 TV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의정대상, 지방자치 행정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했다.

지역발전공헌대상을 수상한 양 전 의원은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향기부금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최초 제안하고, 입법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양 전 도의원은 지난 9월에 같은 이유로 지역 발전과 민주당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민주당 당대표 1급 특별포상을 수상하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청와대 농해수 비서관과 만나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양 전 도의원은 "큰 상을 주신 관계자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지역에서부터 만들고, 농업농촌의 문제와 주민들의 고충에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고, 듣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한눈팔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유호상 기자

'우유 바우처 제도' 도입 공급체계 개선해야

박용근 도의원 개최 공청회서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지난 16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학교 우유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지난 16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학교 우유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학교 우유 급식의 현실태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전북도 축산과 축산경영팀 이희선 팀장, 도 교육청 인성건강과 도혜숙 사무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 지부 김영근 사무국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보라 조직국장, 정일여중 백영숙 영양교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은진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현행 학교 우유 급식 공급제도에 관한 문제로 무상 우유 지원대상 학생의 신분노출, 학생과 학부모 간의 선호도 차이, 법·제도적 추진부처 모호성 등이 논의됐다.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지난 제383회 임시회에서 박용근 의원이 제안한 '우유 바우처 제도' 도입, 지자체 이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근 의원은 "교내 우유 급식은 지난 1981년 경부터 시작됐지만, 여전히 소관부처가 명확하지 않은 등 총체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현행 우유 공급체계를 더욱 학생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국 교육감 협의회 등에서 관련 안건 채택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기자

탄소소재 융복합 산업 발전 기여 '결실'

신영대 의원, 탄소나노산업협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20일 탄소소재 융복합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회장 박종수)'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에 따르면, 신 의원은 소속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탄소산업 육성 및 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그 기반으로서 전주시 산하 출연기관이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승격·출범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신 의원은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이번 국가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및 탄소섬유활용 R&D 예산 등의 확보에 크게 기여하며, 탄소산업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탄소소재 융복합 산업은 미래 신산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탄소산업 발전과 신산업을 통한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호남 유권자 연합 송년회 전북 최우수 광역의원 선정

나기학 도의원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정치철학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는 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군산1)이 지난 16일 광주광역시 4·19 혁명 기념관에서 열린 '제12회 2021년 호남유권자 연합 송년회'에서 전북도 최우수 광역의원으로 선정됐다.

호남 유권자연합회가 선정하는 이 상은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올 한 해 동안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과 의정발전을 이끈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전북지역에서는 나기학 의원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며, 전북의 밝은 미래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나기학 의원은 최근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추가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고용위기지역 추가연장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군산항 활성화 문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활성화 문제,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추가 구축 문제 등 현안 과제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도민 공감대 형성 및 합의를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취약, 소외계층을 위한 환경여건 개선, 서민 생활 안정과 사회복지 실현, 교육여건 개선, 사회 융합 등 사회적 난제들을 하나씩 앞장서 해결해 왔다.

나기학 의원은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주민의 대변자 임무를 묵묵히 수행해 오고 있다"라며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특히 앞으로 농어업인들의 대변자로서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유호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문승우 도의원, 특공무술 중앙회 감사패 수상받아

전북도의회 문승우 위원장(행정자치위원회, 군산4)이 지난 18일 '전라북도특공무술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전북도특공무술중앙회(회장 반철환)는 문 의원이 평소 청소년 건전육성과 무도체육 발전을 위하고, 제5회 회장기 전북도청소년특공무술무예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바가 커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승우 의원은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패를 받게 돼 매우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전통무예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의원은 '전라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전통무예 발전과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